



재해를 예고하는 동물들

**편 용 우**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조교수
pyunsama@gmail.com

1532년 봄, 아키(安芸) 지역 사토(佐藤) 군, 야기(八木) 촌에 있는 아부야마(阿生山) 산의 사코(迫)라고 하는 곳에 큰 뱀이 나타나 왕래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 형상을 듣자니, 크기는 큰 코끼리를 한 번에 삼킬 정도였고, 길이는 곤륜산을 감을 정도였다. 여덟 고개와 여덟 골짜기 사이에 길게 늘어뜨린 등 위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자라있었다.(중략)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끼고 강한 산바람이 불어왔다. 깊은 산 속에 숨어 있던 벚꽃 나뭇잎이 순식간에 떨어졌고 난데없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위는 무너지고 절벽이 갈라져 산이 울리자 계곡이 대답하는 듯 했다.

아키 지역은 지금의 히로시마(広島) 지역으로, 야기는 아사미나미(安佐南)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지역에 나타나 왕래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큰 뱀, 즉 대사(大蛇)는 가가와 가치오(香川勝雄)라는 영웅에 의해 퇴치되었다. 위 인용문은 일본 중세시대 서부 지역의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낸 소설책인 『인토쿠 다이헤이키(陰徳太平記)』(1712년 간행)의 일부분으로, 대사를 묘사한 부분이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과 이를 퇴치하는 영웅 구도는 통일 국가 형성과정에서 이민족 정벌을 정당화시키는 흔한 패턴이다.

그런데 가끔 괴물은 이민족이 아닌 자연재해를 상징하기도 한다. 일본에서 산사태라는 말은 근대 이전에는 ‘사락(蛇落, 자라쿠)’ 혹은 ‘사붕(蛇崩, 자쿠즈레)’ 등으로 사용되었다¹⁾. 즉 뱀이 떨어지거나 뱀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인용부분에도 돌풍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자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산사태를 연상시키는 묘사가 확인 된다. 실제로 위 인용문의 무대가 되었던 아사미나미 지역에서는 2014년 8월 20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77명의 희생자를 초래한 산사태가 발생했다. 조상들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옛날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는 또 있다. 후쿠시마현(福島県)의 소마(相馬)에는 눈이 먼 약사가 매일 같이 법당에 찾아와서 눈이 낮게 해달라고 빌며 악기를 연주했다. 여기에 어느 날부터인가 한 무사가 옆에 와서 음악소리를 듣고 있기에 약사는 그 정체를 물었다. 그러자 무사는 자신이 사실은 법당 뒤 연못에 살고 있는 대사(大蛇)로 음악에 대한 보답으로 좋은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즉 ‘요즘 자신의 몸이 너무 커져서 불편하기에 마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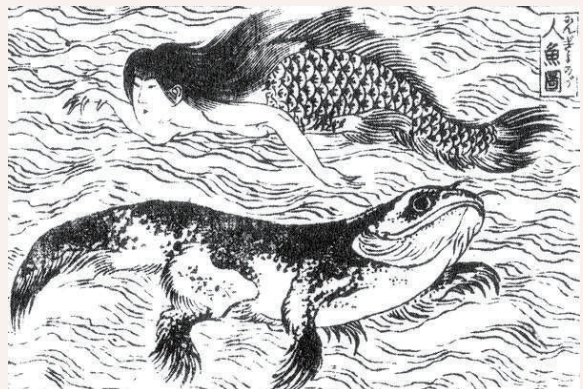
1) 磯田道史 『天災から日本史を読みなおす』 (中央公論社, 2014)

있는 곳까지 연못을 늘려 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악사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대사의 말을 뒤로 하고 영주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갑자기 대사가 나타나 악사를 찢어 죽였다는 이야기이다²⁾. 오키나와(沖繩)의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섬에는 인어(人魚)가 쓰나미(津波, 지진해일)를 예언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세 명의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 상반신은 젊은 여인의 얼굴로 하반신은 물고기인 생물, 즉 인어[그림]을 처음 본 어부들은 마을에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그러자 인어는 자신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바다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노인의 설득으로 인어는 바다로 돌아갔고, 며칠 후에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다. 서둘러 돌아온 어부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 목숨을 구한다는 내용³⁾이다.

쓰나미에 대한 공포는 전설속의 인물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일본 최고의 음양사(陰陽師, 도사)인 아베노 세이메이(安倍晴明, 921~1005)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장소가 시즈오카현(静岡県)의 해변에 존재하고 있다. 붉은색 돌무덤으로 이곳을 방문했던 세이메이가 근시일내에 쓰나미가 올 것을 예견하고 돌무덤을 쌓고 주술을 걸어 놓았다는 이야기이다. 며칠 뒤 정말로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지만, 돌무덤 뒤에 피난해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이 붉은 돌을 들고 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져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다. 이 무덤이 있는 곳은 해발 14.5미터로, 이 지점의 예상 최고 쓰나미 높이는 14미터라고 전해진다⁴⁾. 즉 선인들은 경험을 통해 쓰나미가 도달하지 않았던 장소를 눈에 띄는 붉은 색 돌로 표시를 해놓고 그 돌을 치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음양사의 저주로 각색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들이 재해를 예측한다는 이야기는 한국에도 전해지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뱀이 궁궐 남쪽 창고에서 사흘 동안 우는 기이한 일이 있던 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사와 잉어 떼가 줄지어 연못으로 옮겨가더니 곧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이러한 옛이야기는 사실 자연재해를 예측하거나 조절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욕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물줄기가 경사를 따라 산을 할퀴 모습은 뱀을 연상시키고, 여기에 산사태를 극복하고 싶은 욕망은 신화 속에서 뱀의 목을 베는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인어의 쓰나미 예측이나 음양사의 주술 역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조짐이라도 읽어내려고 하는 욕망의 묘사인 것이다. (계속)



[그림] 19세기 초 소설『椿説弓張月』에 묘사된 인어 그림

2)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 災害情報資料室
http://www.hiroi.iii.u-tokyo.ac.jp/index-genzai_no_sigoto-koten-minwa-daihiyama.pdf
 3) 上勢頭亨 『竹富島誌 民話・民俗篇』(法政大学出版局, 2013)
 4) 磯田道史, 전게서.